

■ 조계종 중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의 '막판 화두' 풀기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이 '관건'

정책모임간 이견 조율이 관건... 임시총회 무산엔 '헛고생' 사설사법법 등 10여 법안 개정도 임기내 처리해야

추대제나 직선제나 놓고 뜨거운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조계종 중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위원장 항적·이하 기초위원회). 기초위원회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중헌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른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이라는 화두 풀기에 진력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현재의 선거방식에 대한 중헌 회의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뚝부러진 담'을 구하기도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13대 중앙총회는 기존의 중헌종법특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종법개정에 걸림돌만 됐다는 지적에 따라 해체를 결의하고 3월 제170차 임시총회에서 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총무원장 선거법 등 중헌종법개정의 쟁점사항들을 다뤄온 기초위원

회가 5개월여 동안 활동을 계속해 왔지만 중앙총회 내 각 종책모임들의 입장차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13대 중앙총회가 10월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사설사법법(대제법안)처럼 일선 스님들의 수행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중헌종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7월 20일 열린 의원연수에서 3선인 종광 스님은 "밀린 중헌종법 개정마저 못한다면, 13대 총회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중도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헌종법 개정 대한 현 중앙총회의 부담감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간 11차례나 거듭된 회의과정에서 다뤄온 법안들에 대한 기초위원회 차원의 의견서 작성에 바

차를 가하고 있다. 기초위원회는 7월 26~28일 마라톤회의를 통해 일부 쟁점법안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의 개정안을 검토를 끝마쳤다. 지금까지 기초위원회가 검토를 마친 법안은 △중앙총회법 △총무원법 △지방종정법 △종립학교관리법 △총무원법 △총림법 △산중총회법 △교육법 △호계원법 개정안 등이다.

기초위원회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로 예정된 171차 임시총회에서 법안의 수정 및 폐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일선 스님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설사법법 제정은 사설사안특위가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승랍 계산에 일부 불이익을 당해온 95년 이후 출가자들의 승려법 개정

청원은 원안을 일부 보완해 분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초위원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법안검토가 될 8월 10일 12차 회의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예산회계법 △법인관리법 △사찰부동산관리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법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추대제와 직선제 두 안을 분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될 전망이다.

기초위원회 위원 덕문 스님은 "기초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총무원장선거법에 집중된 것이 사실"라면서도 "선거법의 나머지 중헌종법 개정안도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모임들 간의 조정이 불발될 경우 171차 임시총회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기초위원회의 중헌종법 개정과 관련한 행보가 '유종의 미'를 거둬지, 애만 쓰고 열매는 따지 못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용수 기자

불교중앙박물관 문제 법정에

조계종, 당시 실무자·예성에도컴 등 고소

조계종이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설공사 의혹과 관련된 당시 실무를 맡았던 재무부 책임자와 종무원, 예성에도컴 관계자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월 2일자로 형사 고소했다.

이미 7월 중순 조계종이 법원을 통해 적정공사비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당초 공사계약금액인 62억원(부가세포함)에 한참 못 미치는 46억

5000만원으로 나옴에 따라 당초 공사 도급 금액과 기성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고발대상은 당시 재무부장 '남' 스님 종무원 '김'모, '정'모씨, 예성에도컴 '임'모 대표, '권'모前 대표, '김'모 상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건설산업법위반 입찰방

해 입부방해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조계종은 예성에도컴과 2004년 9월 조계종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중앙총회에서 영담 스님이 입찰담합, 공사비 과다계약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혼란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최근 조계종은 공사재개를 위한 신규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진행중이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총무원 관계자는 8월 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교계 언론이 종단을 상대로 비리를 저지르고 손해를 끼친자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기사화함으로써 마치 그들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한 것인 양 보도하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공사를 재개하고 그동안 종단이 입었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이나 관련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번 소송이 1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조용수 기자

새터민 템플스테이 실시

천태종 성문사, 71명 참여

천태종이 원주 성문사는 새터민을 위한 3번째 템플스테이를 8월 2-3일 실시했다.

'제3회 새터민 템플스테이'는 나누며 하나되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새터민 71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성문사와 원주 일원에서 무궁화 식수와 다도체험, 토틀기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은 입제식에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이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불교 정신"이라며 "새터민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문사 주지 경혜 스님은 "사선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새터민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 한다"며 "이번 성문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희망이 싹트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은해사에 대학사회복지과정 개설

성덕대학교 협약, 본말사 스님 등 복지전문가 양성 '눈앞'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성덕대학 윤지현 학장은 8월 3일 사회복지학 특별과정 개설 협약을 조인했다.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성 사 보화루에서 불학협약 조인식을 덕대학 윤지현 학장은 8월 3일 은해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7학년도부

터 2년 과정의 사회복지학과 특별과정이 은해사에 개설된다.

은해사교육관에서는 내년 3월부터 성덕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진의 출장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2년 과정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 2급, 케어복지사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실비노인요양원을 개관할 예정인 은해사는 이번 사회복지 특별과정 개설에 본말사 스님과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덕대학의 사회복지 전문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관심 있는 지역 스님과 신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불안 조장하는 전쟁 용납 못해"

불교인권위, 양심수 석방·레바논 침공 규탄성명



불교인권위 소속 스님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규탄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재만 기자

7월 20일 출범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가 8월 1일, 광복 61주년을 앞두고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양심수로 분류된 사람들은 90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사회권 확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사회 화합과 분배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불교인권위원회 21명은 8월 2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김근태 대표와 강재섭 대표에게 각각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불교인권위원회 활동의 지원을 요청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8월 3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레바논 침략 규탄'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회는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수많은 생명을 해치고 전 인류를 불안케하는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은 레바논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계 단체들을 비롯한 여타 20여개의 시민단체들도 이날 낮 12시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레바논 침략'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이스라엘 대사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김주일 기자

동대정관개정 협의체 구성

총회소위, 재단에 요청

동국대 운영실태 파악 및 정관개정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법안)는 8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총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정 사업학교법에 따른 정관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학교법인 동국대 재단측과의 협의체 구성을 위해 재단측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또 8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총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3차 회의 때 재단측과의 협의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남동우기자

팔만대장경·禪·원효 등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우리나라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원효 스님, 석굴암, 선(禪), 미륵,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반가사유상, 서산마애삼존불 등이 선정됐다.

문화관광부는 "민족문화의 정수를 찾기 위해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선정했다"고 7월 26일 발표했다. 이 중 역사상징 인물분야에 원효 스님이, 사찰분야에 석굴암이 선정됐다. 신앙 및 사교상징 불교분야에 선과 미륵이, 언어 및 예술상징 기록분야에 팔만대장경과 직지심체요절이, 미술분야에 반가사유상과 서산마애삼존불이 각각 뽑혔다.

남동우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품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원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을,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선: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즐거우며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6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9월 4일(월)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